

전문가 교칭

직무윤리란 무엇인가?



유규창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한양대 교수)

질문 1

직무윤리는 기업윤리와 어떻게 다르며, 우리 사회에서 직무윤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업윤리는 경영 전반에 걸쳐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반면 직무윤리는 구성원 개개

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구체화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윤리는 기업윤리의 한 요소이면서도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수 있는 윤리의 개념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의미를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직무윤리와 유사한 개념이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라고 하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교사, 회계사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정 직업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업들은 윤리가 요구됩니다. 직업윤리의 다른 표현이 직무윤리입니다. 직무윤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세월호 침몰입니다. 선장이 자신의 직무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망각하여 수많은 아까운 생명을 빼앗아 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질문 2

직무윤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기업윤리가 거시적인 개념이라면 직무윤리는 미시적인 개념입니다. 직무윤리도 기업윤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기업의 전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윤리규범, 윤리강령, 윤리행동지침 등을 제정해야 합니다. 직무윤리는 전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업윤리의 철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성원 개개인들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직무윤리는 기업의 인사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한국기업의 직무윤리가 잘 정착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속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사관리 때문입니다. 속인적 인사관리에서는 하는 일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직무 간의 경계도 애매모호하여 서로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직무윤리가 정착되기 위한 첫 걸음은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직무윤리를 위해 직무분석은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직무분석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기업윤리와 마찬가지로 직무윤리도 이해관계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업윤리에서 제시하는 이해관계자가 포괄적이었다면 직무윤리에서의 이해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이 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구체화되어야 하고, 각각의 이해관계자와 윤리적 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향 & 소식

:: 국내

IMD 한국 국가경쟁력 깎아먹는 10대 요인 보니...부패·투명성이 핵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5위를 기록하면서 일본(27위)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 평가 항목에선 조사대상 61개국 중 55위 이하에 머문 항목이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회계·감사의 투명성, 탈세 등 부정부패 및 투명성과 관련한 3개 항목은 59~6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고, 주주의 권리, 경영자의 신뢰성 등도 57위에 머물렀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8000119&md=20150528082630_BL

'사회책임 촉구'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출범

사회책임의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만든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가 6월 4일 출범했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사회책임기본법 제정과 함께 상장기업·공기업의 사회책임 공시 의무화 또는 강화, 공정운영 관행의 연구와 실천, 기업의 지역사회 관계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42138175&code=100303

한국거래소, 지속가능경영거래소 이니셔티브 가입

한국거래소가 유엔 주도의 지속가능경영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에 가입했다. SSE 이니셔티브는 상장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구로, 전 세계 19개국의 거래소가 가입돼 있고 한국거래소가 20번째 회원이 됐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가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한 투자 등에 대한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7772>

:: 해외

EU, 분쟁광물 규제 '강제'한다

분쟁광물 수요산업과 사용자		
광물	수요산업	용도
주석	전자, 자동차, 공업기계	회로연결 땀납, 주석 도금
탄탈륨	전자의료기기, 공업기계	축전기, 공구, 엔진부품
텅스텐	조명, 공업기계	금속선, 전극
금	보석, 전자, 항공우주	보석, 전기도금

유럽연합(EU)이 분쟁광물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에 나섰다. EU 의회는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분쟁광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고 법안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수정으로 다운스트림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분쟁광물 수입자들이 대상으로 포함 되었으며, 잠재적으로 해당 광물을 사용하는 88만 EU 기업의 공급사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www.kita.net/newsBoard/foreignNews/view_kita.jsp?pageNum

'무제한 데이터' 눈속임 미국 통신사, 1억 달러 벌금

미국의 한 이동통신회사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일정 사용량이 넘으면 통신 속도를 늦춰 데이터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해 온 것이 문제되면서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FCC는 이 업체가 웹 브라우징, 네비게이션, 동영상 스트리밍 등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호도해 소비자에게 가입하게 했으나 소비자가 일정 수준의 데이터양을 사용하면 통신 속도가 광고했던 속도보다 느려지면서 데이터양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kita.net/newsBoard/foreignNews/view_kita.jsp?pageNum

프랑스, 대형마켓 음식물쓰레기 폐기 금지법 통과

프랑스 의회가 대형 슈퍼마켓의 식료품 폐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음식물 쓰레기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팔리지 않는 식료품은 자선단체나 농장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이 공포가 되면 모든 대형마트는 자선단체 및 농장과 음식물 기부 약정을 맺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조치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10년 뒤인 202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유엔은 2013년 보고서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13억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7,500억달러(약 81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23/20150523000003.html>

행사가
브리핑

2015 굿 컴퍼니 컨퍼런스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5 굿 컴퍼니 컨퍼런스'가 5월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컨퍼런스는 'Compliance, Reputation, Performance'라는 주제로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오종남 김&장 고문의 진행 아래 진웅섭 금감원장,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의 연설, 안드레아 보님 블랑 GEC RISK 대표 등의 강연과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윤리경영 스테디

효과적인 윤리경영 제정과 실천을 위한 방법

기업 윤리강령의 필요성

기업의 윤리강령은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를 수 있는 행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다. 기업의 미션과 가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의 직무수행을 이 세가지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윤리강령을 제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임직원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윤리강령은 기업이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 편견, 애매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윤리적 이슈에 대해 의논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 기업 내부에 잘 정착된 윤리규범을 통해 기업은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행정·사법당국 및 협력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직원들 스스로 윤리적인 가치관을 쌓을 수 있다.

윤리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윤리강령 품질

영국의 CSR 전문단체인 'Ethical Performance'는 15개 산업분야 총 392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윤리강령 품질을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은 대중접근성, 경영진의 참여, 가독성, 보복금지조항/강령 위반신고를 위한 시스템, 기업의 윤리적 가치 반영, 주요 리스크 발생 분야 반영, 이해관계자 이해지원 여부, 레이아웃의 8개 주제를 4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A(4.0)부터 F(0.0)로 점수를 매겨 수치화하였다.

조사결과, 392개 다국적 기업이 보유한 윤리강령의 평균 점수는 C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대상 기업 중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52개 기업)와 WMRC(World's Most Respected Companies, 42개 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경우 B-, 100BCC(100 Best Corporation Citizens, 37개 기업)와 WMEC(World's Most Ethical Companies, 23개

기업)에 등재된 기업들의 평균점수는 B로 나타났다. 요컨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랭킹에 편입된 기업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기업 여부와 기업윤리강령의 퀄리티는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기업윤리강령의 퀄리티와 기업의 윤리적 퍼포먼스는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기업 윤리강령을 위한 방안

1. 경영진이 전적으로 이를 따르고 지원하고 있음을 밝혀야 함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직원들이 알지 못한다면,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윤리강령을 따라야할지 고민할 수 있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보고하는데 주저할 수 있다.

2. 일상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여야 함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 업무과정에서 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어떤 업무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다.

3. 부정적인 명령어구 보다는 긍정적인 톤으로 제정해야 함

긍정적이고 권유하는 톤은 임직원들이 윤리강령을 따르도록 의욕을 더 북돋는 효과가 있다.

4. 임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 명확히 해야 함

모호함과 모순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임직원들은 자신이 기업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5. 윤리강령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함

Q&A, FAQ, Case study 등이 포함된 가이드언스를 발간하여 임직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경영진·유명인 등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기고나 지지인터뷰 등을 통해 사내 기업 윤리강령을 장려할 수 있다.

6. 시각디자인상 보기 좋고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해야 함

읽기 쉽도록 작성되었는지,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졌는지, 각 항목들을 찾기 쉽도록 디자인 되었는지 검토해야하며, 직원들이 이를 열어보고 싶도록 흥미를 끌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7.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 고쳐 나가야 함

처음부터 완벽한 기업 윤리강령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으며, 기업환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므로 기업은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사내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간다면, 더 양질의 기업윤리강령과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윤리강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윤리경영 리포트

일본의 윤리경영 특징과 발전사

한국	일본
-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와 제한적 교류	-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와 활발한 교류
- 경영 전반에 윤리경영 전파를 위한 점진적 내재화 단계	- 윤리경영이 기업경영에 내재화된 단계로 진입
- 소비자들의 CSR 구매에 대한 관심이 저조	- 소비자들의 CSR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음

자료제공: 전경련

일본의 윤리경영 발전

일본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도래에 따라 뇌물증여 사건이 빈발해졌고

1990년대 장기불황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업윤리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이 발생하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었다. 2011년 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의 윤리경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원전 사고 뒤 도쿄전력이 기업으로서 이윤을 남기려는 경영적 판단으로 인해 낡은 원전 모델을 고수하다 사건이 더 커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의 윤리경영 발전 단계

1단계	1960년대	-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기업에 대한 불신과 반기업 정서가 팽배
2단계	1970년대	- 오일쇼크 당시, 기업의 이익독점 행동에 대한 사회각계의 비난이 커짐 - 기업들이 환경 관련 부서를 만들고 이익환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 시작
3단계	1980년대	- 유동성 및 버블경제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 - 기업들의 자선활동과 예술 문화를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이 증가

☞ 4면에서 계속됩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업계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이슈와 그에 대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산업은 많은 고용을 유발하며 수많은 협력업체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 기간산업이다. 현재 국내생산 물량의 70% 가까이를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상품 중 하나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자동차는 우리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수 만개가 넘는 부품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자동차는 사소한 불량도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산업의 윤리경영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이슈 1 차량 결함 은폐 의혹

자동차산업에서 차량의 안전문제는 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비자 들은 이러한 안전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차량안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차량안전 관련 문제는 자동차업체의 매출과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며 리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 있어 기업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게 한다. 일부 업체는 이러한 차량 결함 문제를 은폐하려다 더 큰 역풍을 맞기도 했다.

사례 차량 결함에 대한 늦은 대응과 은폐

해외 자동차생산업체인 T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차량 가속페달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2009~2010년에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 전 사고에 대해 T사는 “운전자의 느낌 문제”라고 해명하거나, “순간 브레이크가 들지 않을 때 더 밟으면 차는 분명히 멈춘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리콜 발생 후 열흘 뒤엔 CEO가 공식 사과를 하였고, 관련 정보에 대한 부실한 설명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은폐의혹까지 제기되었다.

T사는 2014년 벌금 12억 달러를 납부하는 내용으로 미국 법무부와 수사 종결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차량 1,200만대 리콜에 대한 배상으로 쓴

돈이 무려 40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아직 기존의 결함 은폐의혹과 관련한 소송이 80건 이상 진행 중이다.

이슈 2 갑질 논란

미국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전문 연구조사기관인 플래닝 퍼스펙티브가 2015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협력업체와의 관계 악화로 차량 한 대당 144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부품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갑질’의 대가가 수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완성차업체의 ‘갑질’ 뿐만 아니라, 작년 공정위에 적발된 1차 협력업체의 ‘갑질’은 최근 협력업체와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최근 행보와 대비된다.

사례 1차 협력업체의 갑질

완성차 업체인 B사의 1차 협력업체 C사는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잇따라 적발됐다. C사는 2010년부터 하도급계약서 평가에 의거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파업에 따른 업무 지장이 생기면,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는 설정 또는 변경된 거래조건이 반영된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업체에 보내 동의를 요구하고,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추가 협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슈 3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완성차 업체들은 수많은 협력사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의 역량저하는 결국 차량부품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완성차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완성차업체는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굴지의 자동차생산업체인 E사의 협력사 중 대기업 숫자는 2001년 46개에서 2014년 139개로 3배 증가했다.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협력사는 같은 기간 46개에서 69개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국내 시가총액이 4.3배 증가한 것에 비해 협력사들의 시가총액은 1조 5,000억원에서 17조 1,000억원으로 11배 이상 급증했다. 자동차생산업체와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이러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3면에서 이어집니다.

4단계	1990년대	- 버블경제가 몰락함에 따라 기업윤리가 문제시됨 - 일본경제연합회는 좋은 기업행동강령을 공포 -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부서를 만들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
5단계	2000년대	- 정재계 스캔들이 만연해지고, 주주 이익 추구가 기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남 - SR이벤트가 부상함에 따라 기업들의 CSR 지수가 중요시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글로벌 트렌드와 지역별 동향 연구, 남영숙, 2011

민간 주도적인 일본의 윤리경영

일본정부는 환경경영에 대해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인 윤리경영(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밀접하고 안정된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기업 경영활동에 대해

법적인 수단을 통해 통제하기 보다는 이니셔티브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윤리경영을 장려해왔다.

기업윤리연구센터 (Business Ethics Research Center Act, BERG)

1997년 12월 유력기업 7개사가 출연하여 경영윤리실천 연구 센터를 설립했으며, 2009년 BERG Incorporation으로 개편되었다. BERG는 일본기업의 기업윤리 개선 및 실천을 위한 윤리의식조사, 기업윤리 실천프로그램 제공, 국제간 정보교류, 윤리교육프로그램 실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일본 유력기업들이 기업윤리 센터에 가입했으며, 가입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윤리강령 및 종업원행동준칙을 제정하고 기업윤리 담당 임원 임명, 감시를 위한 기구설치, 기업윤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제조업, 금융업, 발전산업, 운송업 등 각종 산업분야에서 약 100여 개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Q&A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Q 요즘 공정거래에 대한 이슈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공정거래와 공정무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먼저 '공정거래'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갑의 위치를 이용한 부당행위,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간의 거래를 말하며, 공정거래를 통해 부당한 경쟁을 억제하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올바른 시장경제를 이룩할 수 있고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어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기존의 국제무역 체계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가 만든 환경친화적 상품을 직거래를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최근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공정한 가격을 지불토록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사회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상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공정거래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며,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제3세계간, 즉 세계시장의 경제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2015 전경련 CEO 하계포럼

'이미 시작된 미래, 혁신으로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진행. 세계적인 기업인과 인사가 연사로 참가하여 신기업가 정신, 혁신, 창조, 융합 등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해안을 제공할 예정

- 주최 : 전국경제인연합회
- 일시 : 2015년 7월 22일(수)~25(토)
- 장소 :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제40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제주에서 만나는 통찰과 힐링'이라는 주제로 진행.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도전정신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논의할 예정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 일시 : 2015년 7월 22일(수)~25일(토)
- 장소 : 제주 신라호텔

Translating Sustainability inside the C-Suite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회사의 고위경영진에게까지 전파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지원과 이해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공

- 주최 : US Chamber of Commerce Foundation
-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24일(금)
- 장소 : US Chamber of Commerce, 워싱턴

CollaborateUp Member Workshop

각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경영 브랜드 선두주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회사 브랜드를 어떻게 지속가능성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주최 : HP, CollaborateUp
- 일시 : 2015년 7월 30일(목)
- 장소 : HP본사, 팰로 알토, 캘리포니아

새로운 책 소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은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자 : 안자이 히로유키
출 판 : 비즈니스북스
출판일 : 2015. 5. 22
정 가 : 14,000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저 자 : 이철환
출 판 : 나무발전소
출판일 : 2015. 5. 15
정 가 : 15,000





공익신고자보호법



윤리경영퀴즈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하는 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구체화 한 것으로,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수 있는 윤리의 개념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은?

- 1) 기업윤리
- 2) 직무윤리
- 3) 경영철학
- 4) 업무매뉴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커피 2잔)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3번, 연방판결지침(FSG)**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 정답과 함께 성함, 주소, 핸드폰 번호(모바일 상품권 수신처)를 적어 보내주시시오(24일까지).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김은원님, 송우섭님, 송진희님, 이지선님, 박순민님입니다.**
- ※ 보내주신 연락처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